



더 뉴 GLB



더 뉴 GLA



GLE 쿠페

벤츠 'SUV 3총사' 떴다

더 뉴 GLB·더 뉴 GLA·GLE 쿠페 ... 가격 5000만원대부터 시작

올 가을 메르세데스-벤츠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규 차종을 국내에 선보인다. '패밀리카'와 '차박' 등의 인기로 요즘 대세로 굳혀진 SUV 라인업이 한층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가격도 50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최근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B 등 신형 SUV 3종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벤츠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SUV 3종은 더 뉴 GLB와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A,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 쿠페다.

더 뉴 GLB는 넉넉한 실내 공간과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 탁월한 주행 성능을 두

루 갖춘 실용적인 패밀리카 SUV로, 벤츠 라인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모델로 꼽힌다.

2열 좌석은 967mm의 레그룸(5인승 기준)을 확보했고, 뒷좌석 등받이를 모두 접을 때에는 최대 1805 l에 이르는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더 뉴 GLB는 벤츠의 새로운 M260 엔진이 탑재된 더 뉴 GLB 220과 더 뉴 GLB 250 4MATIC 모델로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다운힐 속도 조절 시스템을 활성화하면 언덕길 주행시 시속 2~18km 범위에서 운

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차량 속도가 자동 조절된다. 추후 디젤 엔진과 고성능 AMG를 비롯해 7인승 모델까지 출시한다는 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계획이다.

또 완전 변경 2세대 신형 모델인 더 뉴 GLA는 이전보다 휠베이스가 30mm가 길어졌고, 전고도 110mm 높아지는 등 넉넉

한 실내 공간으로 디자인됐다.

앞 범퍼부터 바퀴 축까지 전후방 오버행이 줄어들었고, 쿠페를 연상시키는 측면 유리창 라인으로 역동성이 돋보인다. GLA 220과 고성능 AMG 모델 등도 출시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10월 국내 공식 출시된 이

후 4300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었던 GLE 쿠페도 완전 변경 2세대 모델로 돌아온다.

이번에 선보인 SUV 3종에는 자동 속도 조절 등을 지원하는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을 비롯한 다양한 주행 보조-편의 기능이 탑재됐다.

올 9월 출시되는 더 뉴 GLB 220의 가격은 542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더 뉴 GLB 250 4MATIC은 6110만원, 더 뉴 GLA 250 4MATIC은 5910만원이다.

또 10월 출시될 더 뉴 GLE 400d 4MATIC 쿠페 가격은 1억1930만원으로, 이후 출시될 더 뉴 GLE 쿠페 고성능 모델의 가격과 상세한 제원은 출시와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차, 스팅어 마이스터 고객 위한 '시프트 플랜' 출시

기아자동차가 '스텅어 마이스터'를 출시하는 것과 함께 이를 기념한 새로운 구매 프로그램 '시프트 플랜'을 선보인다.

지난 31일 기아차에 따르면 스팅어 마이스터는 2017년 출시한 스팅어의 상품성 개선 모델로 더 역동적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신규 2.5 터보 엔진, 첨단 안전편의 사양 등이 적용됐다.

스텅어 마이스터는 기아차 최초로 신규 파워트레인 '스마트스트림 G2.5 T-GDI'가 탑재됐다. 최고출력 304마력(PS), 최대 토크 43.0kgf·m의 주행 성능을 발휘하면서 11.2km/l 연비를 달성했다.

기존 모델보다 최고 출력 370마력에서 373마력으로 개선됐고, 3.3 가솔린 터보 모델은 전자식 가변 배기 밸브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모든 트림에 엔진 동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코너링을 돕는 차동 제한장치(M-LSD)를 기본 적용했다.

여기에 기본 적용된 주요 편의사양은 ▲제휴 주유소·주차장에서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기아페이' ▲리모트 360도 뷰(자차 주변 영상 확인 기능) ▲내 차 위치 공유 서비스 등이 있다.

이밖에 '차로 유지 보조'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경고' 등 다양한 안전 편의사양도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스텅어 마이스터의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플래티넘 3853만원, 마스터즈 4197만원이다. 마스터즈에서 선택가능한 GT 3.3 터보 패키지 가격은 446만원이다.

한편 기아차는 스팅어 마이스터 출시를 기념해 구매 프로그램 '시프트 플랜'도 선보인다.

'시프트 플랜' 프로그램은 ▲특별 저금리 및 할부금 감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할부금 완납 후 3개월 내 오토할부를

이용해 기아자동차 RV 차량 구매 시 추가 할부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8-9월 중 스팅어 마이스터를 출고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총 36개월의 할부 기간 동안 최저 1.0%의 할부 금리(선수율 10% 이상 현대M계열 카드로 전액 결제 시)와 할부금 100만원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할부 전 기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과 함께 할부금 완납 후 3개월 이내 오토할부로 기아차 RV 차량을 구매하면 200만원의 할부금 감면 혜택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BTS와 함께 한 '아이오닉' 브랜드 음원 공개



'아이오닉(IONIQ)' 브랜드 음원

현대자동차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IONIQ) 론칭에 이어 그룹방탄소년단(BTS)과 함께한 아이오닉 브랜드 음원을 선보인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아이오닉 브랜드 음원 'IONIQ: I'm on it' (아이오닉: 아임 온 잇)은 이날 오후 7시 현대차 월드와이드 사이트를 통해 배포됐다.

이번 음원 속에서 BTS 7명의 멤버들은 각각 ▲새로움과 탐구의 시간(뷔) ▲호기심과 도전의 시간(정국)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RM) ▲희망과 응원의 시간(슈가) ▲감성의 시간(지민) ▲창조와 영감의 시간(제이홉) ▲미레가 쌓이는 시간(진) 등을 주제로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브랜드의 비전과 미래를 표현했다. 해당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과 함께한 아이오닉 브랜드 음원을 선보인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현대차 제공>

음원은 현대차 월드와이드 사이트에 접속 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2월 11시에는 해당 음원의 뮤직비디오가 현대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계획으로, 영상 속에는 아이오닉 브랜드 라인업 중 하나인 '프로페시' (프로젝트명 CE) 컨셉카와 함께 BTS 멤버 개인의 시간과 경험을 미술, 음악, 여행 등의 테마로 제작된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다양

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한편 현대차와 BTS는 2018년 출시된 팰리세이드부터 넥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업으로 현대차 브랜드 비전인 친환경 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지구의 날 공개된 특별 영상은 조회수가 1억건을 돌파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